



2018년 11월 4일(제900호) 연중 제31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선택의 기로에서”

손님이 오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식사 시간이 되면 은근히 고민이 시작됩니다. “뭐 먹지?” 그 한마디의 나비효과는 엄청납니다. 이전 끼니, 그리고 어제, 또 최근에는 무엇을 먹었는지, 또 상대방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치열한 탐색전이 벌어지지요. 그러다 힘겹게 고르고 고른 식당에 갔을 때 마주하는 “오늘 휴일”이라는 팻말이 주는 그 허무함이란. 결국 딱히 가고 싶지는 않았으나 다시 정하기에는 번거롭기에 주변에 있는 아무 식당에 가서 아무거나 먹고 나와도 고민은 이어집니다. 이제 어디 가지? 커피? 차? 아니면...

먹을 게 없어도 문제지만, 먹을 게 너무 많아 오히려 고르는 데 진이 다 빠지곤 하는 힘든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택 장애, 혹은 결정 장애라는 말 또한 낯설지 않지요.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해서 먹는 것으로 예를 들었지만 먹는 것만 우리에게 고민을 던져주는 건 아닙니다. 가전제품이나 생필품을 살 때도, TV 채널을 고를 때에도, 우리는 동시에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살 수 없기에 가장 적은 기회비용일 거라 생각하는 그것을 고릅니다.

그렇게 고르는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념, 가치관, 경험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고르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떤 선택은 즉시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그 결과가 오랜 뒤에 나타나기에 바로 잡으려 할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손쓸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에 대한 선택은 어떨까요? 미사 한 번 빠진다고, 기도 좀 안 한다고, 지켜야 할 계명을 한두 개쯤 어긴다고 해서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힘들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을 선택했을 때 더 큰 재미가 주어지곤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신앙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매주 미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하느님께서 말씀은 통해서, 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복음과 섬김과 희생의 결정체인 성체로 다가오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할 수 있을 때,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 평화를 얻습니다.

이번 달,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위령 성월을 보냅니다. 이제는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이 그저 살아있는 우리들의 기도만을 바라는 연옥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아직 ‘선택의 여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직 갈림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기회가 남아 있음에 감사했으면 합니다. 나아가 그 감사하는 마음 안에서 참으로 올바른 것, 참된 길을 선택하고 기꺼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살아 갑시다.

김영송(살베르토) 신부  
회랑(육군 11사단) 상당 주임



- 제 1 특 시** 신명 6,2-6
- 회 답 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제 2 특 시** 히브 7,23-28
- 복음 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복 음** 마르 12,28ㄱ-34
- 영 성 제 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김종륜 루기



성인명: 김종륜 루기 (金宗倫 Luke)

신분: 양반, 순교자

활동연도: 1819-1868년

김종륜(金宗倫) 루카는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 충청도 공주에서 천주교에 입교한 다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본관은 경주요, 족보에 기록된 이름은 '경희'(敬熙)이다. 김 루카는 평소에 화목함을 특히 강조하였고, 어느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1866년에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부모님을 모시고 경상도 상주 명에목(현, 경북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으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다시 언양 간월(현, 경남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을 거쳐 울산 죽령(현, 경남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교우촌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죽령 교우촌에서 김 루카는 이양등 베드로 회장과 허인백 야고보를 만나 서로 권면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때까지도 이곳은 비교적 안전하였다. 그러나 2년 뒤인 1868년에는 포졸들이 마침내 죽령 교우촌을 찾아내게 되었고, 김 루카는 얼마 되지 않아 교우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경주로 압송되어 가는 동안 김 루카는 동료들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 순교하기로 결심하였다. 실제로 그는 경주 진영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도 천주교 신자임을 고백하고 굳건하게 신앙을 증언하였다. 이어서 김 루카는 동료들과 함께 울산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문초와 형벌을 당하고 신앙을 한결같이 증언하였기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 다음 군대 지휘소가 있는 장대(將臺, 현, 경남 울산시 중구 남외동)로 끌려나가 이양등 베드로 회장과 허인백 야고보와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68년 9월 14일(음력 7월 28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9세였다. 순교 당시에 김종륜 루카는 십자 성호를 긋고 예수 마리아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고 하며, 그의 시신은 형장까지 따라온 허인백 야고보의 아내 박조예에 의해 거두어져 비밀리에 안장되었다.

### 복 음 록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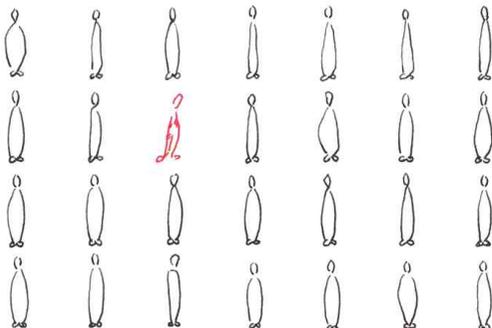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차려

몸과 정신을  
똑바로 차리어  
양다리는 곧게 펴고  
무릎은 붙이는 이 동작을  
기본동작, 바른 동작  
'차려'로 배웠다.

그 외 자세는  
해서도,  
취하려고 마음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차려' 이 동작만이  
정말  
바른 자세일까?



상화이야기

성모님과 세례자 요한



라파엘로, 1510년  
 패널 위 유화, 원 / 지름 94.5cm  
 워싱턴 D.C. 국립미술관, 미국

이 그림은 돌로 된 바닥에 앉아 계시기에 겸손의 성모님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자세와 눈길, 손짓으로 침묵 속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성모님의 얼굴은 무릎에 앉아 계신 아기 예수님을 향하고 계시나, 눈길은 예수님의 다가올 수난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고, 아기 예수님은 손을 뻗쳐 십자가를 잡고 세례자 요한을 바라보고 있으며, 세례자 요한은 두 손으로 십자가를 꼭 끌어안은 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성모님은 오른손을 뻗쳐 아기 예수님과 어린 세례자 요한까지 그 품에 안아주고 계신다.

이렇게 인물들의 시선과 손짓과 자세를 통해 영원한 원(동그라미) 속에, 이 그림이 제작된 시기부터 현재까지 또한, 이 그림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객들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수난의 신비에 대한 목상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

인물들의 옆에 자라나는 식물들도 이러한 메시지를 더하고 있는데, 성모님 아래쪽에 자라나는 앵초과 식물은 성모님의 깊은 사랑과 슬픔을, 제비꽃은 성모님의 겸손을, 세례자 요한의 무릎에 있는 아네모네와 민들레는 예수님의 수난을 상징한다.

십자가를 꼭 쥔 세례자 요한의 손이 인상적이다.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저렇게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김은혜(캘리시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1주일: 방파 주제의 신부

◆ 교구장 동정

- 명성대(8전비단) 성당 사목방문  
 때: 11월 4일(주일)

-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때·곳: 11월 9일(금) 11:00, 서울 국립현충원

- 회의

때·곳: 11월 6일(화), 안양 아론의 집 신관  
 국장회의 13:00, 사제평의회 15:00

◆ 2018년 시제총회 및 연수

때·곳: 11월 6일(화)~9일(금), 안양 아론의 집

“군 복음회, 변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